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이주민을 환대하는 교회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주민을 환대하고 공존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와 단체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8일(월) 저녁 7시
실시간 온라인(zoom +유튜브)

발제 1 | 이주민과 더불어사는 교회(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박흥순 소장)
사례 1 | 지역교회에서 이주민 환대하기(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목사)
사례 2 | 이주민 당사자가 생각하는 환대(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과 루비니 유학생)
사회 | 홍천행(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대화 | 다함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좋은사회포럼] 이주민을 환대하는 교회

┃ 발간일 2024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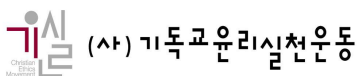
┃ 편 집 홍천행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홍천행 (기윤실 간사)

Ⅰ 발제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교회 4p
- 박홍순 연구소장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Ⅰ 사례

지역교회에서 이주민 환대하기 5p
- 권주은 목사 (구미국제교회)

따뜻한 환대로 변화된 삶 38p
- 루비니 유학생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과)


Ⅰ 전체 대화

Ⅰ 맺는말 - 홍천행 (기윤실 간사)

[발제 1]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교회

박홍순 연구소장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발제자의 요청으로 인해 해당 발제문은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사례 1]

지역교회에서 이주민 환대하기

권주은 목사 (구미국제교회)

소개

경북 구미에서 이주민을 만나고 있는 구미국제교회 권주은입니다. 교회 이름을 정할 당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 '이주민 교회'나 '다문화 교회'로 불린다면 왠지 한국인을 포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도 포함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 고민 끝에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미국제교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름처럼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설교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시작이 중국인들과 함께하는 교회공동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예배를 드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회로 변경되며, 다문화적으로 모이다 보니 영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하고 그들도 영어권 문화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한국어만 소통하였습니다. 사실 그냥 한국어는 아닙니다. 어설픈 영어 단어와 한국어를 섞고 거기에 바디랭귀지와 함께 거의 연극을 하다시피 대화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구미에서 이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주민을 만나는 선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초중고시절 당시 저의 희망 직업은 교향 교회 앞에서 편의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기보다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시간이 그냥 좋았습니다. 매일 교회가 가고 싶은데 목사가 되는 것은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을 부담 없이 매일 밟을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것이 교회 앞 편의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부 후 다녀오고 복학하여 대학교 2학년을 마치며 새로운 신앙적 돌파구가 필요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사역하던 사촌 누나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선교훈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았기에 사실 그냥 설레었습니다. 도망처럼 떠난 중국 선교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있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고백하며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25살 휴학생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복학을 해야 했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끊임없이 매일 몇 시간씩 결혼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그 성경구절 처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일 년의 선교훈련을 마치고 이듬해 선교사님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결혼을 하였고 전 대학 3학년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회 앞 편

의점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아내와 선교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중국 유학생이 국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다녀오고 나니 좀 더 확연히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학교에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 말을 붙이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많은 중국 유학생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친분이 두터워진 중국인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 저희들의 모임을 주위에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신학생도 아닌데 모임이 교회가 되어도 되는가?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러주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교회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름도 과감하게 구미중국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전 중국인교회를 26살 경영학과를 다니던 대학교 3학년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교회에서 다문화 교회로

중국인과 교회를 개척하고 5-6년이 지나도 전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딱히 신학을 한 것 아니라 다른 호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세례와 성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주위의 관계로 인해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을 시작하고 난 후 또다시 저에게 새롭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교회주위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주민이 눈에 보이니 마음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 용기 내어 2013년 '구미중국인교회'에서 '구미국제교회'로 이름

을 변경하고 세계각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열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로 한 명, 두 명 조금씩 국적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다문화적인 모임으로 변화되며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언어적 소통과 생각, 먹는 음식들이 다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어설피 한국어로 드리는 것도 난감한데 성도 간의 교제도 어설피 한국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몇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르완다,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형, 누나, 언니에 대한 서열을 확실히 정하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국제 교회 바로 다문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점심 준비도 메뉴는 꼭 2-3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나라별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랄 닭고기만 먹는다면 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메뉴는 꼭 2-3가지를 준비하여 모두에게 불편함을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가끔 오리머리나 매미, 또는 적응 안 되는 향신료가 들어간 생선요리를 이주민 성도들이 가져 올때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꼭 참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모이다 보니 공부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르완다, 나이지리아 등 나라별 경제, 정치, 문화 등 공부하여 그들과의 대화에서 공감과 이해를 하기 위해 작게나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인교회에서 다문화 교회로 변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인교회에서 다문화 교회로 전환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륙,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설렘도 있지만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살아가며 가진 어려움

중 제일 큰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전에 우연히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이주민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그 친구가 직장에서 미등록체류자 단속이 되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아무런 짐을 챙기기 못한 그 친구가 전화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정리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는 중 끊기전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서는 제 전화기 연락처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한국 생활에 유일한 한국인 친구였다는 말이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주민으로 살아가며 한국인과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친구의 고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주민 생활에서 힘든 것 중 또 하는 바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재와 같은 긴급한 일들이 생겨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도 당황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일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주민들은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느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주민들로부터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을 때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전화들은 이미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부산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과 굴삭기 그리고 캄보디아인 이렇게 3명이 작업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반장이 잠시 전화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묻힌 철근을 자르는 작업 중이던 캄보디아인을 굴삭기가 후진을 하던 중 압착사고가 일어나 사망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굴삭기 압착사고 후 동료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하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낙’ 죽었어. ‘낙’ 죽었어..”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또다시 들려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목사님~ ‘낙’ 죽었어. 조금 전에 낙 죽었어..”

말을 이어 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던 성도였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를 캄보디아에 두고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던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부산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주민이고 가족이 없기에 장례식장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너무 쓸쓸한 그 죽음이 화가 났습니다. 어두운 지하 터널 눅눅한 공사장, 시끄러운 굴삭기가 소리내며 뒤에서 그를 덮쳐 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살려달라고 사람있다고 목이 터

저라 소리 질렀겠지만 지하 터널 안 시끄러운 굴삭기 소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를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던 그 친구의 죽음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쓸쓸히 별이 되어버린 그 친구에게 그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그 어느 날에도 잊지 않고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친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있지만,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도 딸 셋의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과 이후 산후조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가정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대부분 가족이 없기에 임신한 후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가족이 내 딸이 타지에서 외로이 임신하고 출산을 겪는다는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임산부는 출산 후 퇴원을 저희 집으로 합니다. 집에 혼자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째 딸이 태어날 때 이틀 차이로 먼저 출산한 교회 중국인 성도가 저희 집에서 아내랑 함께 한 달 정도 산후조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지역교회의 환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4월말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국내거주 이주민이 260만이 넘었습니다. 대한민

국에서 사상최대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소수 이주민의 유입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주민과 함께 사회적 이웃으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로 보아 자연스러운 교회내 이주민 유입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는 이제 “누구와 예배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직면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국적의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 묘한 불편을 느낍니다. 외국인과의 만남과 교류가 어색하고 낯선 환경에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속어, 인종차별적 단어, 혐오발언, 비하하는 제스처, 같은 공간에 이주민이 들어왔을 때 자리를 옮겨 앉는 행동, 이주민이 사용했던 식판이나 그릇을 따로 관리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의도치 않은 차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서적 상처와 사회적인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개적이거나 노골적이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차별적 행동에 이주민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전문가는 미세차별(Micro aggre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적 용어로 선량한 차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이 상처 받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주민을 환대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이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열 수 있습니다. 강도 보다 빈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만남이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낄 것입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한다면, 사랑으로 하나 됨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노력한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례 2]

따뜻한 환대로 변화된 삶

루비니 유학생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과)

따뜻한 환대로
변화된 삶



목차

- ① 자기소개.
- ② 외국인의 한국생활.
- ③ 외국인이 바라는 환대.
- ④ 따뜻한 환대를 받은 나의 심장.

나는 누구까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공예와 한국드라마 보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다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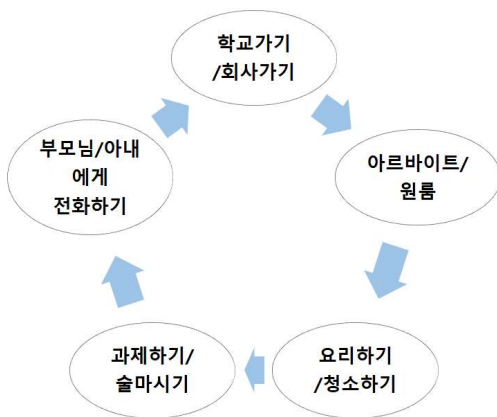


목표는 훌륭한 건축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선택했나요?



외국인의 한국생활



부모님/아내에게 전화하면,

한국에 일하는 .머머 아줌마의 말이 이번엔 새 차를 뽑았대~ 왜 너는 항상 돈이 없다고만 하나?

이번에 보낸 돈이 너무 부족해~ 너 외국에 있으니까 돈이 많잖아,우리 용돈 좀 늘리면 안되나?

사장님:- 다음달 회사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일이 좀 알아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외국인이 바라는 환대

피부색이나 생김 것으로 판단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에 사는 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국에 사는 동안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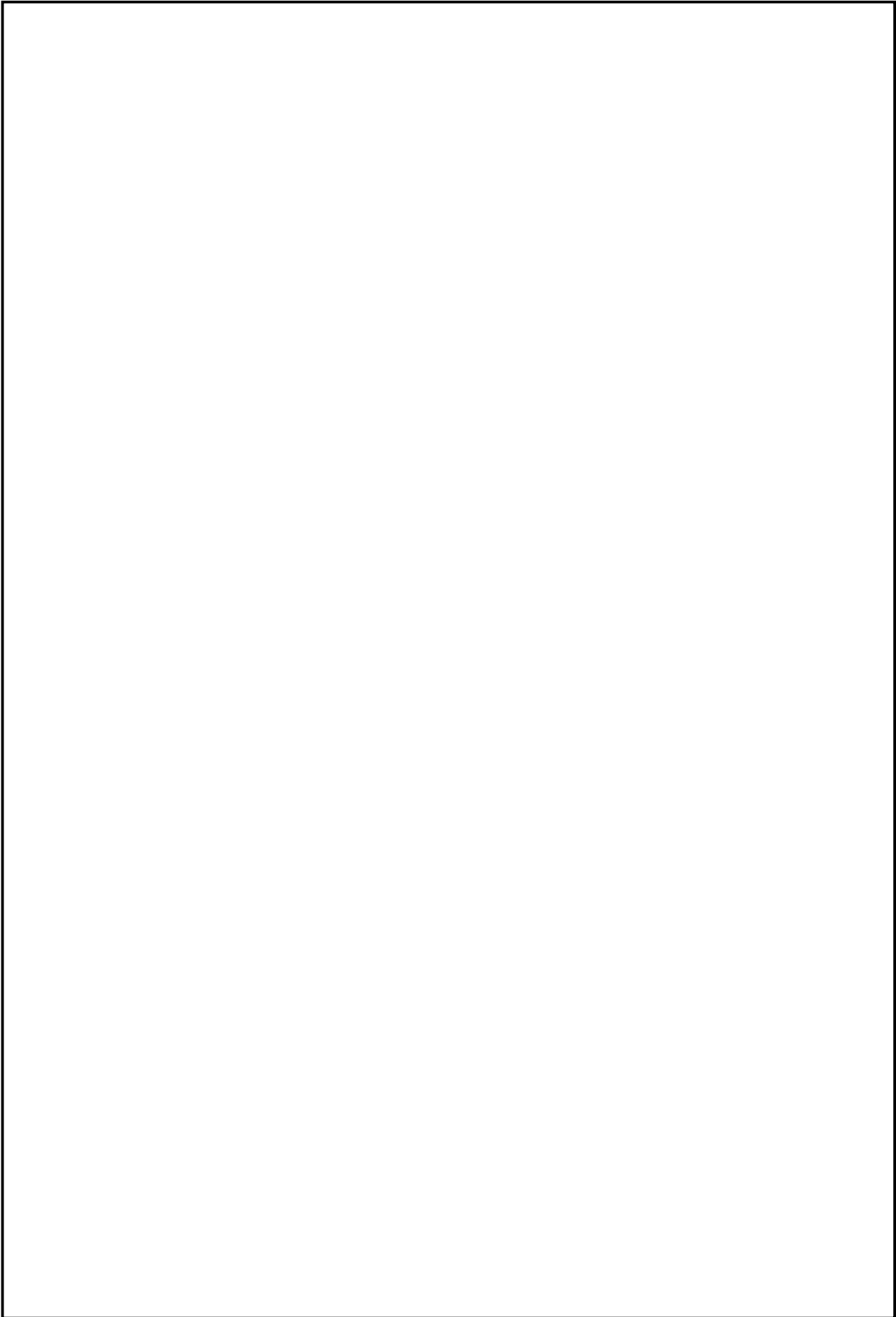
따뜻한 환대를 받은 나의 심장!



- ❖ 힘들어한 저에게 구미국제교회의 목사님과 언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 ❖ 한국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